

모 시 는 말

먼저 오늘, 종단사에 기억될 '종단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 참석하여 주신 대덕스님들과 시민사회 및 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포교신도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불교는 선대 조사스님들의 치열한 구도행과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가르침이 민중의 삶과 생활에 체화되어 온 자랑스러운 일천 칠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천 칠백 년 성상을 자랑하는 현재 한국불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처님의 법은 법당을 나서 종도와 국민들의 삶과 생활 속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행의 결실은 좌복을 벗어나 더 많은 대중에게 희열과 삶의 감동으로 전해져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과 생활의 공동체인 사찰은 관람의 대상으로 전락되었으며, 깨달음을 향해 쉽없는 구도의 길을 걷는 수행자는 번뇌에 얽매어 생사를 초월하지 못하는 범부(凡夫)가 되었습니다.

하여 오늘날의 한국불교는 이 시대의 바람직한 불교관, 시대를 성찰하는 실천관, 현대적인 사상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국민의 아픔과 함께하지 못한 채 고독한 존재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불교 근현대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 불리우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개최하는 이유가 바로 한국불교, 그리고 조계종단이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근원적으로 치유하여 붓다의 가르침을 올곧게 실천하여 삶과 수행, 생활의 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종도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불교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활로를 위해 부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 대중공사를 통해 대중의 지혜와 마음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며, 출가와 재가, 남과 여 그리고 지위고하라는 경계를 넘어 한국불교, 조계종단이라는 사부대중 공동체에 따스한 희망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문제를 단 한 번도 비밀리에 다룬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불교가 법(法)다운 법(法)이 되고, 행(行)다운 행(行)이 되어 붓다의 가르침을 의지하며 실천하고자 한다면 모든 문제를 열린 광장으로 갖고 나와 사부대중과의 대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향해 정치적 편견으로 속단하거나 결따르는 일로만 여기어 진중한 마음을 내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이면에는 종단운영에 대한 불신과 짙은 선입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염려와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대중공사는 실속 없는 겉치장이 아니며, 이 자리에 참석한 대중공사 위원들 모두 주인공이자 주체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 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종단에 대한 강한 불신과 이에 따르는 선입견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요, 이 시대 우리가 풀어가야 할 화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마다의 가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지나친 고정관념을 과감히 걷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대중공사의 출발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아가 무엇 때문에 한국불교는, 우리 종단은 사부대중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불신과 짙은 어둠의 장막을 걷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공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대중공사가 진행되는 시간동안 저 자신도 초심으로 돌아가 총무원장이 아닌 종단 구성원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등한 대중공사의 일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동등한 입장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대중공사를 통해 합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입견이나 편견, 이해관계의 득실을 근원적으로 배제하고 우선 실천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각급 종무기관에 적극 반영되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입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중앙총회의장스님을 비롯한 총회 의원스님들과 함께 입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대중 여러분!

종단사에 기억될 오늘이,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기억하고 명심합시다.

첫술에 배불러하지 않고 시작이 반인 것처럼 오늘 대중공사 시작의 초발심을 잃지 않고 모두 함께 정진해 나간다면 희망의 내일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공심과 원력 속에서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한국불교 희망의 내일을 탁마하기 위해 함께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불기2559(2015)년 1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